

일본의 창의적 최첨단 방적 기술들(4)

첨단 방적 기술이 일본 브랜드의 앞날을 결정

이제까지 실의 잔털 문제, 2층 구조사 및 세번수화에 대한 첨단 방적 기술을 소개하였는데, 이들 외에 형상 변화사라고 하여 신나이가멘이나 도호 텍스타일의 형상 변화 소재들은 각기 개성이 분명하게 다르다.

도호 텍스타일의 멀티카운트사인 “각테일(Cocktail)”은 일반적으로 베이스 변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를 자유롭게 변화시킨 형상 변화사로서 굵고 가는 부분의 정도도 자유롭게 변경시킬 뿐만 아니라, 굵은 부분과, 가는 부분의 길이도 임의로 변경시킬 수 있어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한 “각테일”이 진화된 “각테일 패치워크”는 차별화의 발상이 무한대라고 할 정도로 혼방과 혼방, 필라멘트와 스테이플 등과 같이 어떤 원료나 소재와도 짜 맞출 수가 있다.

형상 변화, 혼상(混狀) 변화, 색상 변화의 세 가지 기둥을 축으로 원사를 개발하고 있는 신나이가이멘은 방적 공정을 개량하여 “가라보(和紡)” 비슷한 방적사 “가라가라”를 개발하였다.

신나이가이멘의 경우, 면·마·견의 장점을 살렸다는 “라포마(羅布麻)”나 화지(和紙 ; 일본 종이)·캐멀 혼방 소재 등 원료로부터 차별화가 추진된다.

형상 변화사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소개한 잔털 극소화사나 2층 구조사 등을 포함하여 과거 수년 동안에 각사의 독자성이 명확히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될 것이다.

단지 일본의 방적 기술이 과연 첨단이나 하는 의문의 소리가 일부 있다. 다이쇼 방적에서는 컴팩트사를 개발한 것이 유럽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의 잔털 기술이 첨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품질 관리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 점에서는 무라타 기계에서도 정방기의 사절 수는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적다고 하며, 사절 발생률이 일본은 1시간 1,000추당 1올 이하인데, 여러 외국은 1~10올이라고 하며, 보전이나 품질 관리에서 일본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기술이 세계에서 첨단인지는 별 문제로 하더라도 일본 내에는 방적 기술에 의한 우수한 소재가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일본의 어패럴은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패럴의 노력 부족을 비난하는 소리도 있으나 메이커측의 어필 부족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폐색감(閉塞感)을 타파하기 위하여 도요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2005년 4월에 고객과 도요보의 쌍방이 맞붙어 특수 방적 기술을 베이스로 독자 개발한 생산 체제로 만든 복합 특화 방적사라고 총칭하여 “이나미” 브랜드로 발표하였다. 이미 몇몇 고객과의 공동 개발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일본은 세계의 패션 기지로서 일본의 지위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 물론 제직이나 편성, 가공 등의 차별화도 필요하나 원점인 실의 차별화가 역시 일본 독자의 패션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도 필요 불가결한 존재가 될 것이다. 방적 기술의 진전이야 말로 앞으로 새로운 일본 브랜드의 앞날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